

새롭게 출발하는 달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January 23,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5번 - 시편 8편 찬 송 / 27장 - 빛나고 높은 보좌와 (1-2 절) (통일찬송 27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502장 - 빛의 사자들이여 (통일찬송 259장) 찬 송 / 368장 - 주 예수여 은혜를 (통일찬송 486장) 봉 헌 / 김훈태 집사, 최선운 집사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 출애굽기 3:1-12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사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354장 - 주를 앙모하는 자 (통일찬송 394장)
삶과 세상으로	찬 양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빌립보서 4:1-3

주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연합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월은 “새롭게 출발하는 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말씀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와 더 많은 나눔을 이룹시다
-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 정기 제직회/공동의회(오전 11시)에 결산과 예산을 위해 가집니다. 협조에 감사합니다.
- 12주 사역훈련 / 안수집사 교육이 속개됩니다.
-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계속합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 주일 QT 나눔/찬양팀 준비 모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합시다.
(오전 11:00)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1월 한달 예배 후 새해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 2) 예배 공예배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시다.

1월의 사역 - 제직회/공동의회(23) 선교 주간(23-29) 선교주일(30)

♥1월 생일축하♥ 김영준(7) 이진아(8) 박강현(20) 정홍렬(21) 구민성(26) 최윤정(28) 유혜영(29)

기도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16	1/23	1/30	2/6
	구 민집사	박진성집사	최선운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1/16	1/23	1/30	2/6
	최선운집사/김훈태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1월			2월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성도의 믿음과 소망** / 출애굽기 2:1-10

노예로 살며 저주받은 인생같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 만사형통할 때 근신하며 자신을 돌아보자. 평안과 안락함 때문에 영적 잠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힘들 때 낙망하기 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 하지만, 포기하고 순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자.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인생이 형통한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 삶을 살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사람 / 출애굽기 3:1-12

왕궁에서 모세의 성장,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

40년간 광야에서의 목자 생활

그곳에서 실패자 같은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다.

그리고,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변화된 은혜를 누리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사람 / 출애굽기 3:1-12

계획의 실천 가능성과 효율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시간과 준비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는가.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통치자로 길러지고 있었다. 강력한 후원자를 가졌으니,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준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것이 빌미가 되고 정치적 변수가 개입되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다. 즉, 세상 기준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세는 넘치는 자격과 준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었다.

최고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돌본다. 넘쳤던 자신감과 혈기와 정의감과 자라는 사라져 갔다. 누구도 80세 모세를 쓰려고 하지 없을 것이다. 양치기로 인생을 정리하게 될 운명처럼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부르신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그럴 자신이 없어 반문한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은 힘이 없고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다. 절대 권력자에게 갈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결국 모세는 실패자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모세의 시선을 사로 잡았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사로잡았다.

이전의 모세는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였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을 피우는 것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놀라운 존재로 변한다. 참된 비전을 가지게 된다. 모세가 누렸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 온전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도록 준비되고 있는가?

말씀적응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끝까지 붙잡는 믿음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다.”

사라는 10년 동안 많이 인내했다.

자신의 나이가 75 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즉 자신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제안한다.

이 방법은 그 당시 자식이 없을 때 후손을 얻는 보편적인 풍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약속을 받은 사라가 믿음이 약해져서 약속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명백한 불신앙이다.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믿음의 일은 곧바로 끝나버린다. 불신앙의 열매는 그의 인생에 울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사라의 말을 곧바로 들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계약의 확증을 주신 후로부터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브라함은 인내하고 기다렸다. 젊은 나이에 10년은 참을 만하다. 그러나 75세 노인이 아이를 갖기 위해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힘든 일이다. 그런데 85세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인간적인 기다림이 한계에 달하자 결국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어지는 나이가 되어 믿음이 약해진 것이다.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또한 **현재 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 믿음이 있는 한 그 약속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사라는 드디어 기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자신의 종을 통해 자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임신 중이던 하갈에게 멸시를 받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생기는가? 상대도 안 되는 자신의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받은 것이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니 자기 종을 통해 멸시를 받게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사람 앞에서 존중히 여겨 주신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시받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다.”

사라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구했을 텐데 그 반대다. 이것을 볼 때 사라는 아직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화가 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여 임신한 하갈이 도망을 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신앙의 열매로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 자기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지 않고,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은혜라고 여긴다. 그러나 진짜 결과는 그로 인해 그 가정에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데도 세상적인 형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고통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은수, 『하마성경(창세기)』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상황은 다시 어렵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만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서로 돕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너희의 마음을 변화함으로 너희의 영을 순종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너희의 행실과 언행이 일치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